

인도네시아 빈민가에 '쓰레기 은행' ... 해양 폐기물 재활용, 수익금으로 주민 도와

금융산업공익재단(海외)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포용금융,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 양성, 지역 상생 등 4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 재단은 201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노사 공동 공익재단이다. 금융노조와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제도권 금융 밖 취약 계층 소액 대출과 자산형성, 노동자 및 미등록 이주인 의료지원사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 활동범위를 국내 넘어 해외로 확대 재단은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재단이 지난 해부터 쿠네티버스 글로벌 임팩트와 함께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생활 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대표적인데, 폐기물 문제, 빈곤 등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 증대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쓰레기 은행' 조합원들이 거래내역을 기록한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

금융산업공익재단 제공

메단은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밀집 지역이다. 해안가에 인접해 있어 대량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장기

방치된 폐해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의 피부,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이어져 왔다. 재단과 쿠네티

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단의 마을 단위 '쓰레기 은행'(Waste Bank) 협동조합과 파트너십

을 맺고 사회경제적 지원을 아끼아고 있다. 협동조합은 주민이 수거한 페플라스틱, 종이, 캔 등을 매입하고,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운영금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가로 학교와 보건소, 지방정부와의 협력 아래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초부터 올해 10월까지 교사 708명, 주민 4390명, 학생 2만7000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문제 해결과 주민소득 증대 도모 재단과 쿠네티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동태들에 사육 기술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사업 모델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동태들은 음식 쓰레기, 축산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먹고 자라는 곤충으로, 효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고, 이후엔 사료로 쓸 수 있어 친환경, 곤충 산업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메단 지역 내 학교 급식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동태들에 사육 및 퇴비화 과정에 활용되며, 생산된 동태에는 건

조 사료·분변도 등으로 가공돼 지역 농가와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현지에서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한국 기업 '엔토모'와 협력해 기술 이전 및 운영 컨설팅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영세 농가들에게도 동태들에 사육 교육을 진행해 시설과 기술을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넓히고 있다. 현지에서 한국 기술 기업의 사회적기업 협력체계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개선, 주민 참여,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 관계자는 "기후 위기와 자원순환 관련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 취약 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이런 사업이 메단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수익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제주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 생태계 구축 ... 홀몸 노인 돕고 공동 육아·해녀 치유

금융산업공익재단(국내)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을 해오고 있다. 생활 밀착형으로 이뤄졌던 돌봄 사업을 정서·문화 치유 영역으로 넓히면서 제주에 특화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 지원에서 자생력 강화로 전환 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오랜 시간 이웃과 단절돼 지내던 독거노인 A씨의 노후 주택에선 모처럼 세탁기가 한창 돌아가고 있다. '남성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속한 활동가들이 이를 세탁을 위해 이 집을 찾았던 것이다. 세탁물의 무게가 빠지는 동안 굳게 닫혔던 A씨의 마음도 열렸다. 빨래와 같은 생활 돌봄으로 고립된 이웃과 관계를 잇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이 성과를 본 순간이었다.

기존 복지 사업이 예산을 아끼고 내려보내는 수월 방식이었다면 이 프로젝트



금융산업공익재단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 활성화 포럼 현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제공

트는 지역사회가 돌봄을 수행할 기초 체력을 키우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 이름에 '인큐베이팅'이 붙은 이유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해 5월부터 재원으로 6억원을 투입해 제주의 구조적 돌봄 문제를 해결할 공동체 16팀을

육성했다. 1년간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을 모두 합쳐 98회 진행해 각 팀이 사업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도왔다. 그 결과 참여 팀의 매출은 전년 대비 112% 늘었고 그 중 2개 팀은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해 자생력을 입증했다.

이들 1기 인큐베이팅 팀이 구축한 생활 기반은 올해 정서·문화 돌봄 사업을 넓힐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재주시 내 남성마을은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29가구를 찾아가 이들이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 마을 주민 11명은 활동가로 성장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 안전망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지역 돌봄 공동체 육성을 통해 제주에선 지난 1년간 2101명이 직·간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정서·문화치유로 돌봄 영역 넓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올해 2기 인큐베이팅 팀도 육성해 새로운 돌봄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팀들은 정서·문화 돌봄에 주목했다. '도토리 프렌즈' 팀은 부모 자조(自助) 모임과 공동육아축제를 통해 장애·비장애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주좀너' 팀은 고령의 해녀들을 대상으로 미술품 치유와 전시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평생 불꽃을 해운 해녀들의 삶을 예술로 승화해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지역 사업을 거점으로 삼은 팀도 있다. 원화산 선한담쟁이는 10년간 그릴해 전문 책방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살려 지역 소모임에 정서 치유 테라피를 제공한다. 동네 사랑방인 책방을 활용해 주민들이 생활 공간 가까에서 마을을 돌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밀착형 치유를 지향한다. 사업을 함께 수행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자금 지원을 넘어 공동체가 스스로 실행력을 갖춘 돌봄 주체로 성장했다는 점이 이번 인큐베이팅 사업이 만든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금융노사가 조성한 기금이 지역의 작은 공동체로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주현 기자

경주 청년상점·벚꽃 앙금빵·목포 여행 패키지·전주 비빔빙수 ... 지역을 빛내는 호텔

라한호텔

전국 랜드마크 호텔로 자리잡은 라한호텔이 지역의 숨은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예술가와 대중의 접점을 확대하는 '로컬상생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 전주, 포항, 울산, 목포 등 국내 주요 관광 거점에 위치한 라한호텔은 풍부한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로컬 경험을 제공해왔다. 이 중 대표작이 지난해부터 라한호텔을 지역 청년 예술가와 로컬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거점이 되는 로컬상생 프로젝트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호텔을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우선 라한호텔의 최상위 브랜드인 라한셀렉트 경주는 경주시 청년감성상점과 함께 호텔 내 북스토어 겸 카페 경주산책에 두 달간 테마 매대를 운영했다. 로컬 창작자들의 감성이 담긴 굿즈를 선보였는데,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프로젝트 이전 대비 매출이 약 4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성북도 내 호텔 협업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현재 경주 전 지역 호텔로 판로를



라한호텔 '켄잡아마일'과 함께하는 '목포 일출투어' 패키지

라한호텔 제공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는 지역 청년 여행가이드와 로컬 투어

패키지를 운영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



라한호텔 벚꽃 앙금빵

라한호텔 제공

한 낭만 가득한 여행 코스는 항구도시의 계절별 매력을 조명하고, 남도의 향토문화도 깊이 경험할 수 있어 고객들의 재구매로 이어졌다. 올 겨울에는 '프라이빗 야경투어'와 '목포 일출투어'를 기획해 연발연시 목포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숨은 여행경로를 소개할 예정이다.

라한호텔은 지역 고유의 맛을 담은 미식 콘텐츠로도 지역 여행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라한셀렉트 경주와 호텔

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선 매년 봄 벚꽃 시즌마다 벚꽃 앙금빵을 선보이고 있다. 1983년부터 사랑받아 온 호텔의 시그니처 단팥빵을 응용해 개발한 베이커리다. 실제 벚꽃잎에서 추출한 진액을 넣어 은은한 벚꽃 향을 구현하고, 졸깃한 빵 반죽과 바삭한 소보로 토핑을 더해 고급스러운 풍미로 큰 인기를 끌었다.

라한호텔 전주에선 지역 대표 음식인 전주비빔밥만 재해석한 전주 비빔빙수

가 큰 화제를 모았다. 신선한 과일을 정갈한 비빔밥처럼 그릇에 담아내 보는 재미와 바버 먹는 즐거움으로 인기를 끌었다.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는 2023년부터 황토토마토와 고구마 등 인근 영남과 해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야식 메뉴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는 영남의 계절 무화과를 듬뿍 넣은 디저트 3종도 출시했다.

라한호텔은 내내에도 로컬과 미식에 집중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나가는 방침이다. 전 지역 조식부식 레스토랑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존'을 조성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들이 여행지의 경험을 일상에서도 떠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굿즈를 선보이는 '국내여행 캠페인'도 구상하고 있다. 라한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숨겨진 명소를 실험할 수 있도록 로컬 출신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와의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라한호텔 관계자는 "고객에게는 편안함 속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는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로컬 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 기획에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